

고다케산 등산코스

일정 : 2.5~3 킬로미터

소요시간 : 1.5~2 시간 (편도)

고다케산(1,042m) 정상으로 가는 등산 코스는 옛 입도다. 원래는 개울 근처 산장 건너편에서 출발하는 등산 코스(옛 고다케 코스) 하나뿐이었지만, 지금은 주차장 근처에서 출발하는 초목이 우거진 입도가 고다케산 정상으로 가는 주요 등산 코스가 되었다. (신 고다케 코스) 신 코스는 옛 입도를 따라 900m 정도를 지난 곳부터 비포장길로 바뀐다. 신 코스와 옛 코스 모두 산 정상에서 800m 앞까지 이어진 너도밤나무 원생림을 지나간다. 두 코스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300m 더 가면 수목 한계선 사이로 길이 나오는데, 그곳부터는 1993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 유산 '등재 지역'의 전경이 펼쳐진다.

옛 등산 코스는 개울을 따라 이어지며, 우거진 너도밤나무 사이를 지나간다. 이 숲에는 가지가 많이 갈라져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, 이 나무는 천수관음보살상을 닮았다고 하여 '천수관음'이라 불리고 있다. 두 등산 코스를 따라 자라있는 너도밤나무 중에는 곰이 남긴 독특한 발톱 자국이 나있는 나무가 있다. 이는 영양가 높은 너도밤나무 열매를 찾아 나무를 오를 반달가슴곰이 남긴 식흔이다. 운이 좋으면 곰이 너도밤나무 열매를 먹을 때 앓기 위해 가지를 모아 만든 선반 형태의 '곰 선반'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.